

1. (나)의 언어 현상은, 그 과정에서 고유한 의미를 창출했는지에 따라 분류된다. 즉, 기존의 단어로는 대체되기 어려운 독립적인 의미를 함축했는가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우선 새로운 의미 내포 없이 효율성만을 위해 축약과 탈락을 거친 단어들이 존재한다. 즐겜이나 ㄱ스 ㄱ스, 머찌근 등의 단어들은 전달의 신속성이나 작성의 효율성을 위해 변형된 것일 뿐, 어떤 상황이나 특징을 대변하는 의미를 새로이 가지진 못한다. 이와 다르게 고유한 의미를 전달하는 신조어들이 존재한다. 즉, 단순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동시대의 현상이나 특정 관계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조부모에 의한 돌봄노동이 확산된 현시대를 반영하는 '손주병'이나, 가정적인 남성을 선호하는 사회분 위기를 드러내는 '능청남'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언어 현상은 더 나아가, 사회 규범의 안정성과 역동성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우선(가)-2와 같이 사회의 역동성과 즉각적인 수용능력을 긍정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후자의 언어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창조적인 언어 변용은 그 자체로 언어 관습에 새로운 질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 이슈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회 변혁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변화하는 사회상을 공동체의 언어에 즉각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진보를 부추기는 것이다. 반면에 전자의 언어 현상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는 반대로 (가)-1 같이 사회 규범의 준수와 안정성의 관점에서 볼 때 전자와 후자의 언어사용은 모두 부정적인데, 언어 규범을 무시한 신조어 그 자체가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어문 규정을 어긴 신조어는 세대간의 소통을 어렵게 하고, 한국어의 정체성을 흐릴 것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경우가 어문 규정을 준수한 복합어인 경우에는 용인할 수 있는데, 새로운 의미의 창출은 규범을 지킨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라)의 A국과 B국은, 남녀의 사법 시험 지원율에 변화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차이를 보인다.

우선 A국의 경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의 사법 시험 지원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반대 급부적으로, 남성의 지원율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B국은 1998년과 2008년의 사법 시험 지원 현황에 있어 남녀 성비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회규범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관습이나 현상으로 정의한다면, A국은 단기간에 사회규범의 변혁을, B국에서는 사회규범의 유지를 겪은 것이다.

10년만에 여성의 사법 시험 응시가 확산된 A국의 경우, 사회규범의 변화에 있어 네덜란드와 같은 양상을 띤다. 네덜란드 사회는 대마초 흡연에 있어 10년만에 개방적인 태도에서 보수적인 태도로 급격히 변했다. 바로 이점이, 단기간에 여성의 사법 시험에 지원이 증가한 A국과 공통점을 가지는 것이다. 즉, 단기간에 사회규범의 변화를 이루어냈다는 이유에서 둘은 공통점이 있다. 이에 반해 1998년과 2008년에서 성비 변화를 보이지 않은 B국은 미국의 사례와 일맥상통한다. 비록 미국이 2010년대에 들어와 대마초에 개방적인 분위기를 수용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전까지, 특히 1930년대 즈음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대마초는 여전히 불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규범이 단기간에 변화할 수는 없음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점이 B국과 공통점을 갖는 것이다. 결국 (라)의 표의 A국은 사회규범의 수정에 있어 네덜란드와 같이 유동적인데 반해, B국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림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A국과 B국은 공통점을 보이는데, 아무리 A국에서 여성의 사법 시험 지원율이 높아졌다고 해도, A국과 B국 모두 여성의 지원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사회의 기저에 깔린 근원적인 사회규범은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다시 말해, 네덜란드와 미국, 한국 모두가, 대마초 흡연이 법률의 감수를 받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규범은 받아들이는 것처럼, A와 B국의 사법 시험 지원에 있어서도 남성의 참여가 더 용인되고 있는 모습 자체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